

보도일시	2025.5.22.(목) 즉시 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단장 : 안규백)
담당자	박영화 팀장(010-4652-0520) / 김윤진 팀장(010-5672-8877) / 나호선 팀원(010-9073-1328)

"반려동물과 사회적 약자,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로"

상생공존 장려특보단,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 장애인·독거노인과 유기동물의 정서적 치유 공동체 모델 제시
- 특보단, “이재명 후보, 생명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책임자”

- 반려동물과 사회적 약자가 상호 돌봄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동물매개 치유 모델’이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산하 ‘상생공존 장려특보단’은 21일, 지지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과 실천을 지속해온 정치인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 생명존중 철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지향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 생명존중의 철학을 제도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밝혔다.
- 특히 “반려동물과 사회적 약자의 상호 치유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통합과 생명존중의 실현”이라며, “상생공존의 철학은 고립되고 무관심해진 사회에 따뜻한 관계망을 복원하고, 우울증, 자살 사고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예방책이 될 수 있어 관련 정책과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지지선언은 반려동물 복지, 유기동물 문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복지 현안과 관련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이 뜻을 함께한 것으로, 향후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반려동물 테라피 활동, 사회적 약자 돌봄 연계 사업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상생공존 장려특보단은 반려동물과 사회적 약자가 상호 돌봄과 치유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생명존중과 긍정심리자본을 높이는 실천형 시민 조직으로 유기동물 문제 해결, 장애인과 독거가정의 정서적 지원, 공동체 회복을 주요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 별첨 : 행사사진

